보도시점 2024. 4. 14.(일) 12:00 배포 2024. 4. 12.(금) 16:00

봄철 야외 활동 안전하게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

- 4.15.부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발생 감시 시작
- 참진드기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임
- 봄철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기피제 사용 등)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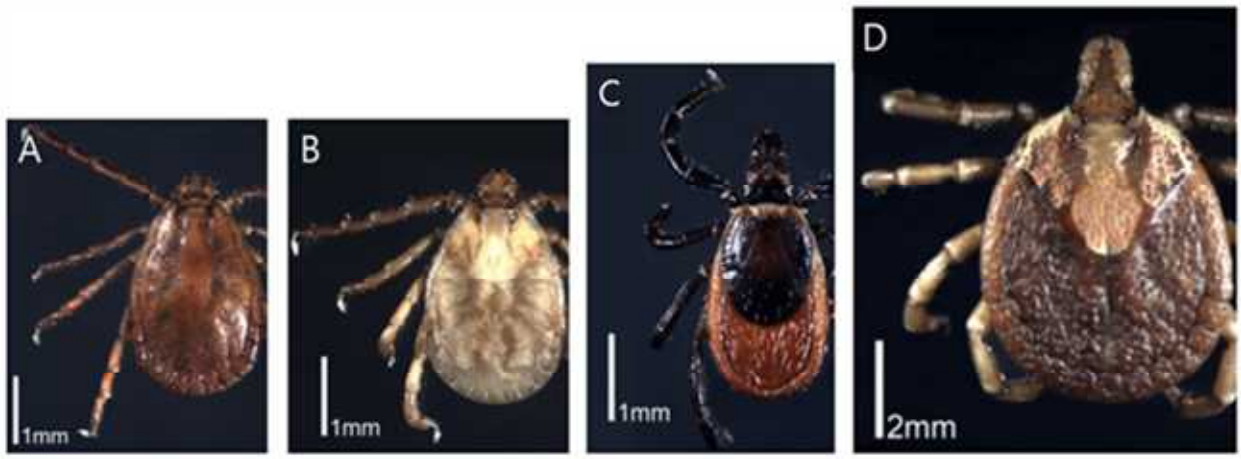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전국 **18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며, 매월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붙임 1 참고).

<발생단계별 참진드기 모습>

참진드기는 3숙주 진드기로,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발생**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 가을철(9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SFTS 매개 참진드기: 작은소피참진드,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SFTSV 매개 참진드기>
(A:작은소피참진드기, B:개피참진드기, C:일본참진드기, D:뭉뚝참진드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었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과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참진드기를 피하는 방법 >

①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말기

②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③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2024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2. SFTS 매개 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Q&A)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희일 (043-719-8560)
		담당자	연구사	김현우 (043-719-8565)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종희 (043-719-7160)
		담당자	연구사	황지혜 (043-719-7167)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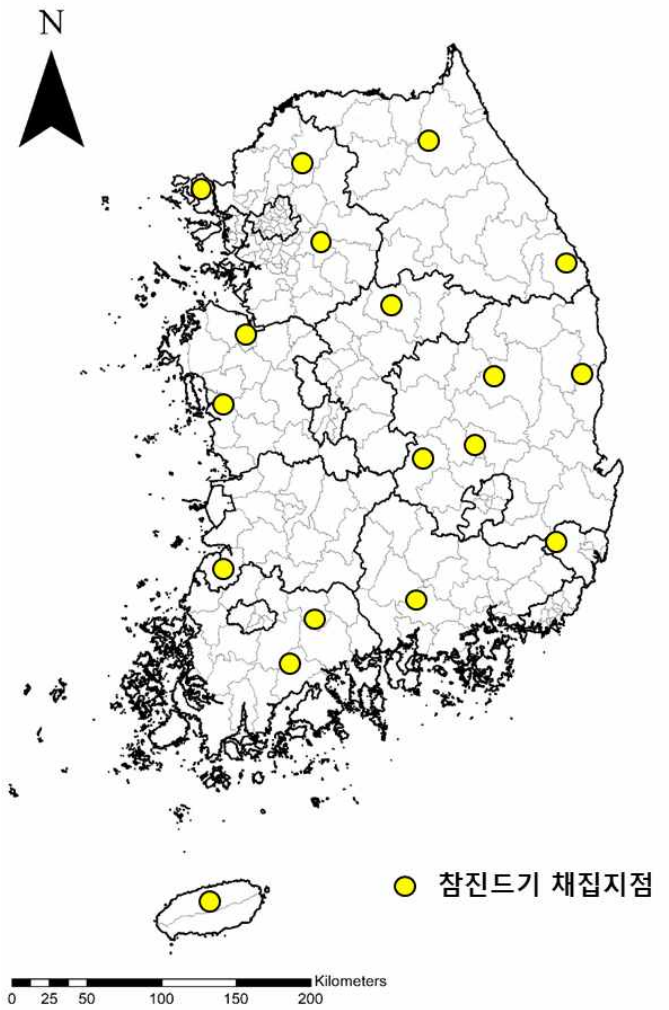
붙임 1 **2024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 '24년도 매개 참진드기 감시지점

○ 16개 지역(4개 환경*)에서 매월 참진드기 감시 수행

기관명	질병관리청	국방부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역	충주시	고창군	군위	영덕	인제군	보성군
기관명	인천대학교	삼육대학교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지역	강화군	포천시	삼척시	광주시	보령시	당진시
기관명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상주)	전남대학교		고신대학교	제주대학교
지역	김천시	안동시	곡성군	진주시	울주군	제주시

* 사람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채집·분석 수행 : 무덤, 잡목림, 산길, 초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붙임 2 SFTS 매개 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Q&A)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요?

○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합니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습니다.

Q2.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요?

○ 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었을지 검사해도 될까요?

○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합니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